

#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 『문법』(2002) 이후의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

박형진(가천대)

---

<차 례>

---

1. 들어가며
  2. 기술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연구사
  3.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기술 내용 검토
  4. 나오며
- 

【벼리】 이 글에서는 학교문법에서 이루어진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기술 내용을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문법』(2002)는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나누는 전통적 체계를 바탕으로 기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독서와 문법 I』은 기본적으로 『문법』(2002)의 전통적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기술 내용이 간소화됨에 따라 대부분 관계절만을 관형사절의 예로 기술하고 있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독서와 문법』에서는 관계절을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만, 관계절 이외의 다양한 관형사절 구성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언어와 매체』에서는 『독서와 문법』의 기술 태도가 이어지며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학교문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긍정적 방향의 변화로 평가된다.

\* 주제어 : 관형사절, 관계절, 명사구 보절, 학교문법, 기술문법

## 1. 들어가며

본고의 목적은 학교문법(school grammar)에서 이루어진 관형사절<sup>1)</sup>의 체계에 대한 기술 내용을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sup>2)</sup> 어린 아이는 대개 고래를 단순히 갈치, 고등어와 같은 어류의 한 종류로 피상적으로 인식하다가 생물학의 분류 체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포유류의 한 종류로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어떤 분야의 체계에 대한 교육은 해당 분야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학교문법의 기술 과정에서 각 기술 대상 범주에 대한 체계의 설정은 구체적인 기술 내용 선정 및 기술 방법의 모색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문법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관형사절의 체계 자체의 문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듯하다. 관형사절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기술 내용과 기술 방법, 효과적인 교수 방안 등에서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에 천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기술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학교문법의 기술이 관형

---

1) 관형사절에 대해 학교문법의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관형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부 교과서에서 ‘관형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관형절’, ‘관형사형 어미’는 등재되어 있지만, ‘관형사절’, ‘관형형 어미’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문법의 모든 교과서에서 관형사절 이외의 다른 내포절과 그 내포절을 형성하는 어미에 대해서는 ‘부사절-부사형 어미’, ‘명사절-명사형 어미’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학교문법에서 ‘-(으)ㄴ’, ‘-는’, ‘-(으)르’, ‘-던’을 지칭하는 용어로 ‘관형사형 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관형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이관규(2012:17), 이선웅(2014:170), 임지룡 외(2020:22) 등 학교문법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학교문법’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문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문법’의 개념은 이선웅(2014:176)에서의 언급과 같이 다수의 문법가가 다양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한 문법의 총체로 이해될 수 있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학교문법’과 ‘기술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술문법과 학교문법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선웅(2014)를 참고할 수 있다.

사절의 체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학교문법이 취하고 있는 관형사절의 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학교문법의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을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를 검토한다는 것이 기술문법이 학교문법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기술문법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가 학교문법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전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선웅(2014:16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문법은 교육을 위한 문법이고 교육은 실제 언어생활을 이해하는 데 최적의 도구를 제공하는지가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고는 학교문법의 기술 내용이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과 도구로서, 다양한 언어 자료를 관찰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문법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기술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검토하고자 하는 문법 교과서 목록은 아래 <표 1>과 같다.<sup>3)</sup> 7차 교육과정을 준거로 개발된 교과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이하 ‘국교연(2002)’로 지칭)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현행 『언어와 매체』 교과서까지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는 임지룡 외(2020:3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학교문법은 기본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정신과 틀을 계승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sup>4)5)</sup>

3) 이선웅(2014:17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문법은 교과서의 기술로 구현된다. 학교문법의 외연은 엄밀하게는 초등학교 국어과, 중등학교 국어과, 고등학교 공통 국어과의 문법 기술까지를 포괄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문법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4) 임지룡 외(2020:32)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공식적 명칭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1년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쓰이고 있는 것도 현재의 학교문법이 7차 교육과정의 정신과 틀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했다.

5) 학교문법의 변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고영근(2000), 이관규(2012), 임지룡 외

교육과정	교과서
1997년 7차 교육과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sup>6)</sup>	박영목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윤여탁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이남호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비상교육.
	이삼형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2011년 개정 교육과정	박영목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윤여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이관규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삼형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이도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학사.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민현식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방민호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미래엔.
	이관규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
	이삼형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지학사.
	최형용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lt;표 1&gt; 검토 대상 교과서 목록

학교문법에서 이루어진 관형사절 체계에 대한 기술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가 온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추후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기술 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실제 학습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문법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주지하다시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 II』의 분권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 중 본고의 주요 검토 대상인 관형사절 관련 내용은 『독서와 문법 I』에 편성되어 있다.

## 2. 기술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연구사

2장에서는 기술문법에서 이루어진 관형사절의 체계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기술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전체 연구사를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3장에서 이어질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기술에 대한 검토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볼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의 관형사절은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었다.<sup>7)</sup> 이러한 전통적 체계는 이익섭·임홍빈(1983:270-285)에 잘 드러나 있다. 이익섭(1983:270-285)에서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을 모두 기저의 한 문장이 모문에 내포된 절로 인식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을 구분하였다.

### (1) 관계절

가. 관계절 내부에는 핵어명사와 동일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있다.

나. 관계절의 예:[내가 e<sub>i</sub> 읽은] 책이 참 재미있다.

### (2) 명사구 보문

가. 명사구 보문의 핵어명사는 관형사절 내부의 한 성분이 되지 않는다.

나. 명사구 보문은 핵어명사의 내용절(contents clause)이 된다.

다. 명사구 보문은 관형사절 내부의 종결 어미 실현 여부에 따라 불구보문과 완형보문으로 나뉜다.

① 불구보문의 예:[네가 책을 읽은] 사실이 놀랍다.

② 완형보문의 예:[네가 책을 읽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전통적 체계에서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내부에 핵어명사(head noun)와 동일지시적(co-referential)인 통사적 공백(gap)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

7) 이후의 논의에서는 편의상 이익섭(1983)과 같이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누는 체계를 ‘전통적 체계’로 지칭하기로 한다.

가의 통사적 기준에 따라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으로 나뉘었음을 알 수 있다 (1가, 2가). 그리고 명사구 보문은 핵어명사의 내용절이 된다는 의미론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었다(2나).<sup>8)</sup> 한편 명사구 보문<sup>9)</sup>은 다시 관형사절 내부의 종결어미 실현 여부에 따라 불구보문과 완형보문으로 나뉘어 기술되었다(2다).<sup>10)</sup>

이후 관형사절의 전통적 체계 내에서 한국어 관형사절의 다양한 문법적 특성이 상세히 밝혀지는 연구의 성과가 있었다.<sup>11)</sup> 그런데 연구의 과정에서 한국어의 관형사절에는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급되기도 했다.

- (3) 가.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홍식 1990:99)  
 나. [몸이 아픈] 이유는 과로를 해서이다. (박형진 2016:125)  
 다. [농사를 짓는]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김지은 2002:166)  
 라. [걷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 (문숙영 2012:38)

(3)의 예들은 모두 관형사절의 내부에 핵어명사와 동일시지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절로 처리될 수 없다. 그런데 (3가-라)의 관형사절은 각각 핵어명사 ‘소리, 이유, 가운데, 운동’의 내용절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기 때문에 명사구 보절로 처리되기도 어렵다. 전통적 체계

8) 이런 점에서 명사구 보문은 ‘동격절(appositive clause)’로 불리기도 했다.

9) 장경희(1987:487-489)에서는 ‘네가 책을 읽은 사실이 놀랍다.’의 관형사절 ‘네가 책을 읽은’은 문장(sentence)가 아니라 절(clause)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문’ 대신에 ‘보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전통적 체계의 논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0) 명사구 보문을 불구보문과 완형보문으로 나누는 논의는 남기삼(1973)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1) 관계절에 대한 연구사로는 이홍식(1990), 이필영(1990), 신효필(1994), 이필영(199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명사구 보문에 대한 연구사로는 이홍식(1990), 이현희(1990), 이필영(1998), 이홍식(199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된 예들은 모두 (3)과 같이 관형사절의 내부에 핵어명사와 동일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상정되지 않으며, 의미론적으로 관형사절이 핵어명사의 내용절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박형진(2016:60-68)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전통적 체계의 설정이 영어를 주요 대상 언어로 하여 기술된 생성 문법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생성 문법에서는 영어의 명사 수식절(adnominal clause)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구분했는데, 문숙영(2012:34)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에서 명사 수식절 구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관형사절 구성으로 나타나는 예가 존재한다.

#### (4) 한국어의 관형사절 구성과 영어 표현의 대응 양상

기호	한국어		영어	
(가)	관형사절 (관계절)	[내가 $e_i$ 읽은] 책 <sub>i</sub>	the book <sub>i</sub> [ $\{which, that\}$ I read $e_i$ ]	명사 수식절 (관계절)
(나)	관형사절 (명사구 보절)	[내가 책을 읽은] 사실	the fact [that I read the book]	명사 수식절 (명사구 보절)
(다)	관계절과 명사구	[큰] 나무	big tree	형용사
(라)	보절에 속하지	[타는] 냄새 (문숙영 2012:34)	smell of burning	전치사구
(마)	않는 관형사절	[긁는] 소리 (문숙영 2012:34)	scratching sound	명사구

(4)를 참고하면 전통적 체계는 생성 문법의 명사 수식절 체계를 수용하여 (4가)와 같은 관형사절은 관계절로, (4나)와 같은 관형사절은 명사구 보절로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은 통사적 공백의 유무로 구분되고, 명사구 보절은 영어의 명사구 보절과 동일하게 핵어명사의 내용절이 된다는 의미론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4다, 라, 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명사 수식

절로 나타나지 않는 구성이 한국어에서는 관형사절 구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즉 영어 명사 수식절의 외연과 한국어 관형사절의 외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체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통적 체계에 속하지 않는 (3)과 같은 예가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은 전통적 체계의 설정 과정에서 한국어 관형사절의 외연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5) 전통적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기술문법의 논의

가.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 외에 추가적인 관형사절을 설정하는 논의:

이홍식(1990), 김지은(2002), 홍윤기(2010)

나. 단일한 명사 수식절로 관형사절의 체계를 설정하는 논의:

문숙영(2012)

다. 새로운 관형사절의 체계를 설정하는 논의:

박형진(2016), 박형진(2020), 김태인(2022)<sup>13)</sup>

(5가)는 (3), (4라-마)와 같은 예들에 대해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 명사구 보절 이외에 새로운 관형사절의 범주를 설정하여 이들을 귀속시키고자 한 논의이다. 이홍식(1990)에서는 (3가)와 같은 관형사절을 비동격절로 처리하고,

12) 이와 같은 비판적 논의가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나누는 전통적 체계의 가치와 의의를 부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훌륭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관형사절의 다양한 문법적 특성이 밝혀졌으며, (5)와 같은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성찰적 연구들도 전통적 체계에 입각한 선행 연구들이 없었다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의 연구 흐름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는 현재의 관점으로만 선행 연구를 비판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13) 김태인(2022)에서는 관형사절을 관형사절이 의미론적으로 사건(event)을 표상하는가 명제(proposition)를 표상하는가에 따라 ‘사건 표상 관형사절/명제 표상 관형사절’로 나누고, 관형사절 내부의 종결어미 출현 여부에 따라 ‘비정형 관형사절/정형 관형사절’로 나누는 이원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3나)와 같은 관형사절을 명사적 관형사절로 처리했다. 김지은(2002), 홍윤기(2010)에서는 (3다)와 같은 관형사절을 연계절로 처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에 속하지 않는 예들을 관형사절의 체계 내부로 포섭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관형사절의 예가 발견될 때마다 제4의 관형사절, 제5의 관형사절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5나)의 문숙영(2012)는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를 단일한 명사 수식절을 가지는 체계로 이해하고자 한 논의이다. 문숙영(2012)에 의하면 영어를 비롯한 인도유럽어는 동사구 보절과 명사구 보절이 통사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sup>14)</sup> 관계절은 동사구 보절, 명사구 보절과는 다른 통사적 구조를 이루는 유형의 언어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언어에서는 명사 수식절에 속하는 명사구 보절과 관계절을 통사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는 명사구 보절과 관계절이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동사구 보절은 이들과 다른 통사적 구조를 이루는(명사형 어미의 결합 등) 언어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인도유럽어의 관계대명사와 같은 통사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한 통사적 구조를 보이는 명사구 보절과 관계절의 구별이 오직 통사적 공백의 유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관형사절 내부에서 핵어명사와 동일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존재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단일한 명사 수식절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3), (4라-마)와 같이 통사적 공백의 유무에 의해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구별되기 어려운 예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5나)와 같은 주장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박형진 2016:63). 하지만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관계절로 언급된 '[내가 e<sub>i</sub> 읽은] 책<sub>i</sub>이 재미있다.'와 같은 예에서 관

14) 'The student know [that I read the book].'은 영어의 동사구 보절의 예인데, 이는 (5나)의 명사구 보절 'the fact [that I read the book]'과 유사한 통사 구조를 이룬다.

형사절 내부의 통사적 공백은 필수적 공백인데, (5나)에서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관계절과 그렇지 않은 관형사절의 구별에 대한 고려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5다)는 한국어 관형사절을 이해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한 논의이다. 박형진(2016), 박형진(2020)에서는 (4)와 같이 한국어 관형사절의 외연과 영어 명사 수식절의 외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전통적 체계에서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은 대(對)를 이루는 이루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이원적 체계를 제안했다.<sup>15)</sup>

(6) 박형진(2016), 박형진(2020)의 관형사절 체계

기준	구분	
가. 통사적 공백의 존재 유무	관계절	비관계절
나. 관형사절과 핵어명사의 의미론적 관계	부가어 관형사절	보충어 관형사절

(6)은 한국어의 관형사절을 관형사절 내부의 핵어명사와 동일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의 존재 여부라는 통사적 기준(6가)에 따라 관계절과 비관계절로 나누고, 명사논항론의 관점에서 관형사절이 핵어명사의 의미론적 논항(argument)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6나)에 따라 보충어

15) Comrie(1989:143)에서는 관계절을 ‘명사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절’로 정의했다. 이는 기능적 측면의 관계절 정의로 주로 언어유형론의 논의에서 활용된다. 이와 달리 관계절은 통사적 측면에서 정의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Vendler(1968:11)에서는 ‘동일지시적인 명사를 공유하고 있는 두 절 중에, 어떤 한 절이 동일지시적인 명사를 매개로 다른 절의 내포절이 된 것’이라고 관계절을 정의했다. 한편 명사구 보절은 의미론적 측면에서 명사의 논항이 되는 절을 의미한다. 관계절을 어떤 측면에서 정의를 하더라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은 개념적으로 대가 되는 용어로 보기 어렵다. 박형진(2016:67)의 언급처럼 영어의 명사 수식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나눌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어 명사 수식절의 외연은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의 합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어 관형사절의 외연은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의 합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complement) 관형사절과 부가어(adjunct) 관형사절로 나누는 이원적 체계이다. (6)에서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은 대부분 관계절이면서 부가어 관형사절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6)</sup> 그리고 전통적 체계의 명사구 보절과 (3)의 예들은 비관계절이면서 보충어 관형사절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7)</sup>

(6)은 개념적으로 정합성을 갖춘 체계를 제안하며 새로운 체계 속에 한국어의 모든 관형사절을 포함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어떤 관형사절이 핵어명사의 보충어인가 부가어를 판단하는 과정에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점<sup>18)</sup>, 보충어 관형사절의 의미역 체계가 더 정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같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문법에서 이루어진 관형사절 체계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기술문법에서는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나누는 체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다가, 전통적 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16) (6)을 보면, 한국어의 관형사절 중에는 관계절의 구조를 가지면서 핵어명사의 논항이 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박형진(2016:98-101)에서는 ‘그는 [까다로운] 성격이다.’,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 ‘[빨간] 색깔의 옷’을 이러한 관형사절의 예로 제시하였다.

17) 박형진(2016:154-165)에서는 핵어명사의 논항이 되는 보충어 관형사절이 가지는 의미역에는 내용역(contents), 기준치역(criterion), 대상역(theme), 결과역(result), 이유/원인역(reason), 배경역(background), 목적역(purpose), 중차역(differentia), 속성역(property)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 체계의 명사구 보절은 내용역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그리고 (3가-라)는 각각 배경역, 결과역, 기준치역, 중차역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즉 (6)과 같은 박형진(2016)의 관형사절 체계에서 전통적 체계의 명사구 보절은 내용역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한 종류일 뿐이며,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에 포함되지 않는 (3)과 같은 예들도 각각의 의미역을 가지는 보충어 관형사절의 하나로 처리된다고 할 수 있다.

18) 여기에는 어떤 관형사절이 핵어명사의 보충어인가 부가어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 ‘X+명사’ 구성에서 명사의 의미적 구현을 위해 어떤 의미 성분을 요구하는가를 언어 직관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다. 이선웅(2005:156)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 직관에 의한 기술이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동사의 논항 설정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지적했다. 이선웅(2005:156)에서는 동사의 논항 구조가 오랜 연구를 통해 의미역 체계가 정밀해지는 과정을 통해 모호성을 극복했던 것처럼 명사의 논항 구조에 대한 천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의 논의가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문법의 논의 중 상당 부분은 교육의 용이성, 교육 시간과 교과서 지면의 물리적 제약 등의 측면에서 학교문법에 반영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는 학교문법의 기술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한국어의 관형사절 체계에 핵어명사와 동일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는 관계절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관형사절의 내부에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관형사절에는 전통적 체계의 내용절 이외에 핵어명사와 다양한 의미론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은 학교문법의 기술 과정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기술 내용 검토

3장에서는 서론의 <표 1>에서 제시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기술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교연(2002)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는데, 각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따라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기술 내용에도 변화가 관찰된다. 각 교육과정의 순서에 따라 학교문법에서 이루어진 관형사절 체계 기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3.1. 7차 교육과정:『문법』(2002)

국교연(2002)는 총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5. 문장'은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짜임', '3. 문법 요소'의 하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형사절 항목은 '2. 문장의 짜임'에 편성되어 있다. 국교연(2002)의 관형사절 관련 기술 내용은 아래 (7)과 같다.

(7) 국교연(2002)의 관형사절 항목 기술 내용

본문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 요소들은 다음에서 보듯이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예문	이 책은 내가 {읽은/읽는/읽을/읽던} 책이다.
탐구	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안고 떠납니다. 나. 좋은 차는 몸이 먼저 느낍니다. 다. 내가 태어난 1950년에 625가 발발하였다. 라.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마.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교연(2002)의 본문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으로 관형사절이 형성된다는 점과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시제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만을 기술하고,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적 기술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7)의 ‘탐구’에서 국교연(2002)가 관형사절의 체계와 관련하여 전통적 체계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7가-다)는 관계절에 해당하고, (7라-마)는 명사구 보절에 해당한다.

국교연(2002)에서 전통적 체계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국교연(2002)의 교사용 지도서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ㄴ)(이하 ‘국교연(2002ㄴ)’으로 지칭)의 설명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국교연(2002ㄴ:201)에서는 (7가-다)에 대해 “뒤에 오는 체언과 관형절 내의 성분이 동일하여서 그 성분이 탈락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7라, 마)에 대해 “그 자체가 뒤의 ‘사실’, ‘생각’이라는 체언과 동일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생략되는 성분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7가-다)와 같은 예를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고, (7라, 마)와 같은 예를 ‘동격 관형절’<sup>19)</sup>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국교연(2002)는 기본적으로는 전통적 체계의 입장을 따라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나누고, 이들의 차이를 관형사절 내부의 통

19) 국교연(2002)에서 전통적 체계의 용어인 ‘명사구 보문’ 대신에 ‘동격 관형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보문’이라는 용어가 학교문법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기술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

사적 공백의 유무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sup>20)</sup>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인 기술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는 국교연(2002)의 기술상 특징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이관규(2012:38)에서는 국교연(2002)의 주목되는 특징으로 간략한 설명에 이어 탐구 활동 문제가 수록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문법 지식이 단순한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고하고 추론하는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교연(2002)에서는 (7가-마)의 '탐구'에서와 같이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에 해당하는 예를 충실하게 제시하여 학습자가 전통적 체계에 해당하는 관형사절의 예를 총망라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기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2. 2009년 개정 교육과정:『독서와 문법 I』(2012)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독서와 문법 I』은 검인정 체제에서 총 4종의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검인정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각 교과서에서 관형사절 항목이 편성된 단원의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이 교과서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교과서	관형사절 항목이 편성된 단원의 구성
박영목 외 (2012)	III 국어의 구조 - 3 문장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짜임 (3) 국어의 문장 표현
윤여탁 외 (2012)	III 우리말의 의미 형성 - 1 문장 (1) 문장의 구조와 종류 (2) 문법 범주의 이해
이남호 외 (2012)	IV 국어와 얹 - 2 문장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종류 (3) 문법 요소
이삼형 외 (2012)	3 국어의 이해와 탐구 - 03 문장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구조 (3) 문법 요소 (4) 문장의 의미

<표 2> 『독서와 문법 I』 교과서별 관형사절 항목이 편성된 단원의 구성<sup>21)</sup>

20) 국교연(2002)가 출간될 당시는 기술문법에서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나누는 전통적 체계가 널리 받아들여지던 시기이다.

다음으로 관형사절 항목에 대한 각 교과서의 본문 기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 3>은 각 교과서의 본문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과서	본문 기술 내용
박영목 외 (2012)	관형절: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예) 이 책은 내가 {읽은/읽는/읽을/읽던} 책이다.
윤여탁 외 (2012)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으)ㄴ, -는, (으)르, -던’을 가진 관형절이 안김. 예) 이것은 내가 읽던 책이다.
이남호 외 (2012)	안긴 문장의 종류에는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있다. <sup>22)</sup>
이삼형 외 (2012)	관형절은 안은 문장 안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는 절로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 요소들은 각각 표현하는 시제의 차이를 보인다.

<표 3> 『독서와 문법 I』 교과서별 관형사절 본문 기술 내용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서와 문법 I』의 관형사절 기술 내용은 국교연(2002)에 비해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삼형 외(2012)에만 국교연(2002)의 본문 기술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박영목 외(2012), 윤여탁 외(2012), 이남호 외(2012)에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사절이 형성된다는 내용만이 기술되어 있다.

『독서와 문법 I』 모든 교과서의 본문 기술에서도 공통적으로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발견되지 않는다. 임지룡 외(2020:3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문

21) 단원명에 밑줄을 쳐 해당 단원에 관형사절 항목이 기술되어 있음을 보인다. 이후의 논의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의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22) 이남호 외(2012)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본문이 아니라 학습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활동하기’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이는 다른 교과서의 본문 기술 내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표 3>에 함께 제시하였다.

법 교육 항목이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교연(2002)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형사질의 체계에 대한 명시적 기술이 『독서와 문법 I』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로 이해될 수 있다.<sup>23)</sup> 따라서 각 교과서의 관형사질 체계 기술 내용에 대한 검토는 본문과 학습활동에 수록된 관형사질 예문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먼저 박영목 외(2012)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3>에서와 같이 박영목 외(2012)에서는 본문에 관계질의 예 ‘이 책은 내가 {읽은/읽는/읽을/읽던} 책이다.’를 사용하고 있다.<sup>24)</sup> 박영목 외(2012)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학습활동의 보충 설명 부분에 “관형절 안의 성분과 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일치하여, 관형절 안의 성분이 생략된 형태로 나타난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한다.”라고 관계질의 통사적 특성을 기술하고, 이어서 “좋은 음식은 몸이 먼저 느낀다.”라는 관계질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가 관형사질 중 관계질의 통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박영목 외(2012)는 본문과 학습활동에 제시된 예문이 모두 관계절 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어의 전체 관형사질이 관계절로만 구성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윤여탁 외(2012)와 이남호 외(2012)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아래 (8)과 (9)는 각각 윤여탁 외(2012)와 이남호 외(2012)의 학습활동에 제시된 관형사질 예문인데, 모두 관계절에 해당하는 예이다.

(8) 가. 그는 눈이 예쁜 아이를 좋아한다.

23) <표 3>과 같이 관형사질에 대한 각 교과서의 본문 기술 내용이 국교연(2002)에 비해 간소화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4) 이는 국교연(2002)에서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에 따라 시제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본문에서 사용한 예문과 동일하다.



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9) 가. 1승을 거둔 상기는 나머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했다.

나. 어제 산 책을 학교에서 잃어버렸다.

다른 교과서와 달리 이삼형 외(2012)에서만 4종의 교과서 중 유일하게 관계절 이외의 관형사절 예문을 학습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다.

(10) 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안고 떠납니다.

나. 좋은 차는 몸이 먼저 느낍니다.

다.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은 이삼형 외(2012)의 학습활동에 제시된 관형사절 예문이다. (10가, 나)는 관계절의 예에 해당하고, (10다)는 명사구 보절의 예에 해당한다. (10)을 통해 이삼형 외(2012)는 국교연(2002)을 따라 전통적 체계에 따른 관형사절의 예를 모두 제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4종의 『독서와 문법 I』 교과서는 국교연(2002)를 계승하여 관형사절의 전통적 체계를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본문의 기술 내용과 표현 및 학습활동에 사용된 예문이 국교연(2002)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의 집필이 상당 부분 국교연(2002)를 참고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방침에 따른 교육 항목의 간소화가 단순히 국교연(2002)의 기술 내용을 기계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그 결과 이삼형 외(2012)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관계절만이 관형사절의 예로 제시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술을 통해 학습자는 관형사절을 관계절로만 구성되는 체계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 3.3. 2011년 개정 교육과정:『독서와 문법』(2014)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의 분권 체제로 구성된 교과서가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서와 문법』 단권으로 통합되며 총 6종의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각 교과서에서 관형사절 항목이 편성된 단원의 구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6종의 교과서 모두 ‘국어의 구조’ 대단원 아래에 ‘문장’ 중단원을 두고, 그 아래의 ‘문장의 짜임/구조’ 소단원에 관형사절 항목을 편성하고 있다.

교과서	관형사절 항목이 편성된 단원의 구성
박영목 외 (2014)	Ⅱ 국어 구조의 이해 - 3 문장 (1) <u>문장의 짜임</u> (2) 문법 요소
윤여탁 외 (2014)	Ⅱ 국어의 구조와 국어 생활 - 3. 문장과 표현 (1) <u>문장의 짜임</u> (2) 우리말의 문장 표현
이관규 외 (2014)	Ⅳ 우리말의 구조 - 3 문장 (1) 문장의 성분 (2) <u>문장의 짜임</u> (3) 문장의 표현
이삼형 외 (2014)	3 국어의 이해와 탐구 - 03 문장 (1) 문장의 성분 (2) <u>문장의 구조</u> (3) 문법 요소
이도영 외 (2014)	Ⅱ 국어 구조의 이해 - 3 문장 (1) <u>문장의 짜임</u> (2) 문법 요소의 이해
한철우 외 (2014)	Ⅱ 국어 구조의 이해 - 3. 문장 (1) <u>문장의 짜임과 정확한 문장</u> (2) 문법 요소와 표현 효과

<표 4> 『독서와 문법』 교과서별 관형사절 항목이 편성된 단원의 구성

각 교과서에서 이루어진 관형사절에 대한 본문 기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 5>는 『독서와 문법』 각 교과서의 관형사절 관련 본문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과서	본문 기술 내용
박영목 외 (2014)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으)ㄹ’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문장 속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윤여탁 외 (2014)	...‘이것이 내가 읽던 책이다.’의 ‘내가 읽던’은 문장에서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관형절이고...
이관규 외 (2014)	안긴문장에는 ‘-(으)ㄴ’, ‘-는’, ‘-(으)ㄹ’, ‘-던’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관형사절로 안긴 문장... 등이 있다.
이삼형 외 (2014)	관형절은 안은문장 안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는 절로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단다. 이 요소들은 각각 표현하는 시제가 서로 다르다.
이도영 외 (2014)	관형절은 ‘-(으)ㄴ’, ‘-는’, ‘-던’, ‘-(으)ㄹ’ 등이 붙어 뒤에 명사를 꾸미는 절이다.  나는 새 옷이 좋다. 나는 {내가 만든, 내가 만드느, 내가 만들던, 내가 만들} 옷이 더 좋다.  ‘새’가 ‘옷’을 꾸며 관형사로 분류되는 것처럼 ‘내가 만든, 내가 만드느, 내가 만들던, 내가 만들’이라는 절이 ‘옷’을 꾸미므로 이를 관형절이라고 한다. 이런 관형어는 명사만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식별할 수 없을 때 정보를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꽃’이라고만 해서는 어떤 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흰 꽃’, ‘어제 핀 꽃’처럼 수식어를 덧붙이는 것이다.
한철우 외 (2014)	관형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체언 앞에 위치하여 체언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며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표 5> 『독서와 문법』 교과서별 관형사절 본문 기술 내용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서와 문법』의 관형사절에 대한 본문 기술 내용은 『독서와 문법 I』에서 보였던 기술의 간소화 경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이 중 이도영 외(2014)의 본문 기술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상세히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이도영 외(2014)에서는 <표 5>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핵어명사에 대한 관형사절의

의미론적 기능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적 측면의 관계절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관계절이 아닌 관형어도 핵어명사의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개념적 정합성이 없는 기술은 아니지만, 그 예로서 ‘흰 꽃’, ‘어제 핀 꽃’과 같이 관계절만을 예로 든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sup>25)</sup>

다음으로 각 교과서의 본문과 학습활동에서 제시한 관형사절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의 관형사절 예문
박영목 외 (2014)	(11) 가. 민우가 읽은 책은 시집이다. 나.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다. 형은 어제 읽던 책을 오늘 마저 읽었다. 라. 윤서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해 보았다.
윤여탁 외 (2014)	(12) 가. 이것은 내가 읽던 책이다. 나. 강산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이관규 외 (2014)	(13) 가. 앞에는 물빛이 매우 투명한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나. 좋은 차는 몸이 먼저 느껴
이삼형 외 (2014)	(14) 가.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다.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 네가 좋아할 일이 생겼다. 마. 어제 핀 꽃이 벌써 시들었어. 바. 철수가 책임지고 준비한 행사가 무사히 끝났어.
이도영 외 (2014)	(15) 가.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나.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긴 유산이다.
한철우 외 (2014)	(16) 가. 동생은 효주가 노래하는 소리를 좋아한다. 나. 우리 땅에 사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표 6> 『독서와 문법』 교과서별 관형사절 예문

<표 6>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별 관형사절 제시 예문에서는 몇 가지 특징

25) 이도영 외(2014)에서는 본문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에서도 관계절만을 관형사절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 관찰된다. 첫째 『독서와 문법 I』에 비해 『독서와 문법』에서 예문이 훨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와 문법 I』에서는 국교연(2002)의 예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독서와 문법』에서는 훨씬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6종의 교과서에 사용된 예문은 대부분 관계절 구성의 예이다. (11나), (14다), (16가)를 제외하고는 <표 6>의 모든 예문은 관계절의 예에 해당한다. 이는 관형사절의 체계에서 관계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윤여탁 외(2014), 이관규 외(2014), 이도영 외(2014)와 같이 관형사절의 예문으로 관계절 구성만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한국어의 관형사절이 관계절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 박영목 외(2014), 이삼형 외(2014), 한철우 외(2014)에서는 관계절이 아닌 관형사절 구성도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삼형 외(2014)의 (14다)는 전통적 체계에서 완형 보절로 다루어진 예에 속하고, 박영목 외(2014)의 (11나)와 한철우 외(2014)의 (16가)는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에도 속하지 않고 명사구 보절에도 속하지 않는 관형사절로 언급된 예이다.<sup>26)</sup> 이는 『독서와 문법 I』에서 1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관계절 구성만을 관형사절의 예로 제시한 것에 비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관형사절을 제시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는 면에서 학교문법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독서와 문법』에서는 학습활동의 기술 내용 측면에서도 이전 시기의 교과서에 비해 주목되는 변화가 관찰된다. 바로 학습활동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윤여탁 외(2014), 이관규 외(2014), 이삼형 외(201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아래 <표 7>로 정

26) (11나), (16가)와 같은 예문의 선정은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나누는 전통적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문법의 논의가 학교문법에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리해 보았다.

교과서	관계절의 통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활동
윤여탁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산이는 <u>이마에 흐르는</u> 땀을 씻었다.</li> </ul> <p>밑줄 친 부분의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p>
이관규 외 (2014)	<p>&lt;보기&gt; •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 개울 물빛이 매우 투명하다.</p> <p>&lt;문제제기&gt; &lt;보기&gt;의 문장들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 &lt;가설설정&gt; “두 문장에 ‘개울’이 모두 있으니, 이 단어를 이용하여 안은문장을 만들 수 있겠군.”</p> <p>&lt;가설검증&gt; 1단계:두 문장 나열하기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 개울 물빛이 매우 투명하다. 2단계:하나의 문장을 안으로 이동하기 앞에는 [개울 물빛이 매우 투명하다.] 개울이 흐르고 있다. 3단계:반복 표현 중 하나를 삭제하기 앞에는 [물빛이 매우 투명하다.] 개울이 흐르고 있다. 4단계:안긴 문장의 어미를 바꾸기 앞에는 [물빛이 매우 투명한] 개울이 흐르고 있다.</p> <p>&lt;결론도출&gt; “아하,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겹문장이 도출될 수 있겠군.”</p>
이삼형 외 (2014)	<p>다음 문장에서 안긴 관형절을 찾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제 핀 꽃이 벌써 시들었어. →</li> <li>철수가 책임지고 준비한 행사가 무사히 끝났어. →</li> </ul>

<표 7> 관계절의 통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활동

먼저 <표 7>의 이관규 외(2014)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관규 외(2014)에서는 관계절이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학습활동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관계절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관계절은 동일지시적인 명사를 공유하는 두 절 중에, 어떤 한 절이 동일지시적인 명사를 매개로 하여 다른 절에 내포된 것이라는 점과 동일지시적인 명사는 관형사절의 내부에서 통사적 공백으로 나타난다는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표 7>의 윤여탁 외(2014)와 이삼형 외(2014)의 학습활동을 통해서도 학습자는 그러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표 7>의 학습활동 내용 기술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집필의 태도를 읽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법 학습 방법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과 암기가 아닌 사고력 신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sup>27)</sup> 따라서 관계절의 통사 구조에 대한 학습이 <표 7>과 같이 학습활동의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8)</sup>

둘째는 관형사절 중에서 관계절의 통사 구조에 대한 학습이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국교연(2002) 이후 문법 교육 항목과 내용이 점차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7>에서와 같이 3종의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을 학습하도록 설계한 것은 관계절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sup>29)</sup> <표 6>에서와 같이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제시된 예문 중 관계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대학수학능력

27) 이관규(2012:40)에 의하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탐구 학습이 문법 교육의 중요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2011년 개정 교육 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28) 이는 앞서 살펴본 국교연(2002~2011)의 본문과 박영목 외(2012)의 본문 보충설명에서 관형사절의 통사 구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이 이루어진 것과 분명히 대비가 되는 부분이다.

29)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내일 친구와 볼 영화’, ‘어제 서점에서 산 책’과 같이 이른바 긴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이를 관형사절로 잘 분석해 내지만, ‘넓은 방’, ‘빨간 사과’와 같은 이른바 짧은 관형사절에 대해서는 이를 관형사절로 잘 분석하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관형사절의 내부에는 핵어명사와 동일지시적 요소가 통사적 공백으로 나타난다는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관계절의 통사 구조에 대한 학습은 실제 사용되는 언어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모의평가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17)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14번 문항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① ㉠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② ㉡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③ ㉢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④ ㉣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⑤ ㉣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17)은 『독서와 문법』 교과서가 사용되던 시기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에 출제된 문항이다. 이 문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표 7>에 제시된 관계절의 형성 과정과 통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식 교과 교육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내용만을 범위로 한다는 원칙에 의해 출제가 이루어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17)과 같은 문항이 출제된 것은 학교문법의 <표 7>과 같은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7)과 같은 문항은 관계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꽤 널리 공유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기술 과정에는 관계절뿐만 아니라 관계절이 아닌 관형사절의 예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관형사절의 예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3.4. 2015년 개정 교육과정:『언어와 매체』(2019)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과목명이 바뀌며 총 5종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각 교과서에서 관형사절 항목이 편성된 단원의 구성은 아래 <표 8>와 같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과목명이 ‘독서와 문법’에서 ‘언어와 매체’로 바뀔에 따라 대단원과 중단원 구성은 달라졌지만 관형사절 항목이 ‘문장의 짜임’ 소단원에 편성된 것은 모든 교과서가 동일하다.

교과서	관형사절 항목이 편성된 단원의 구성
민현식 외 (2019)	IV 문장과 담화, 매체 문화의 향유 - 1.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1) 문장의 짜임 (2) 문법 요소
방민호 외 (2019)	2 국어의 구조 - (3) 문장 (탐구1) 문장의 짜임 (탐구2) 문법 요소의 활용
이관규 외 (2019)	III 담화와 문장의 탐구 및 활용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2) 문장의 짜임과 활용 (3)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이삼형 외 (2019)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 3 문장과 문법 요소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짜임 (3) 문법 요소
최형용 외 (2019)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 1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1) 음운의 체계와 변동 (2) 단어의 구조와 특성 (3)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4) 담화의 개념과 요건

<표 8> 『언어와 매체』 교과서별 관형사절 항목이 편성된 단원의 구성

『매체와 언어』 각 교과서의 관형사절 본문 기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과서	본문 기술 내용
민현식 외 (2019)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이 요소들은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방민호 외 (2019)	‘나는 수영이가 추천한 책을 읽었다.’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나는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이 ‘ <u>수영이가 (책을) 추천하다</u> ’라는 절을 안고 있다.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
이관규 외 (2019)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 어미들은 동사와 결합하여 각각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을 표현한다. 관형사절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이삼형 외 (2019)	관형절은 안은문장 안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는 절로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이 요소들은 각각 표현하는 시제가 서로 다르다.
최형용 외 (2019)	동생이 색종이로 만든 쟁반을 어머니께 선물했다.  위 문장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색종이로 만든’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자리에 쓰였다. ‘동생이 새 쟁반을 어머니께 선물했다’를 위 문장과 비교해 보면 관형사인 ‘새’ 자리에 ‘색종이로 만든’이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u>색종이로 (쟁반을) 만든다</u> ’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을 붙여서 관형사처럼 사용한 것이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으)ㄴ’, ‘-는’, ‘-던’, ‘-(으)ㄹ’이 있다.

<표 9> 『언어와 매체』 교과서별 관형사절 본문 기술 내용

<표 9>를 보면 5종의 교과서에서 이루어진 관형사절 본문 기술 내용은 대체로 『독서와 문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명시적 기술도 드러나지 않는다. 특징적인 면은 방민호 외(2019)와 최형용 외(2019)의 밑줄 친 부분의 기술이다. 두 교과서 모두 본문에서 관계절 구성을 관형사절의 예로 언급하면서, 관형사절로 내포되기 이전의 절을 각각 ‘수영이가 (책을) 추천하다’, ‘색종이로 (쟁반을) 만든다’와 같은 형식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핵어명사와 동일지시적 성분을 ‘(책을)’, ‘(쟁반을)’처럼 괄호로 표시하여, 이들이 관형사절의 내부에서는 통사적 공백으로 나타난다는 관계절의 통사

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민호 외(2019)와 최형용 외(2019)의 이러한 본문 기술은 『독서와 문법』 체제에서 학습활동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관계절의 통사적 특성을 전달하고자 한 경향이 본문 기술에도 어느 정도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의 본문과 학습활동에서 제시한 관형사절의 예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의 관형사절 예문
민현식 외 (2019)	(18) 가. 이 음반은 내가 {듣은/듣는/들음/들던} 음반이다. 나.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방민호 외 (2019)	(19) 가. 나는 수영이가 추천한 책을 읽었다. 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다. 나현이는 언니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관규 외 (2019)	(20) 가.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다. 이 책은 내가 {읽은/읽는/읽음/읽던} 책이다. 라.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이삼형 외 (2019)	(21) 가.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다.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 네가 좋아할 일이 생겼다. 마. 어제 핀 꽃이 벌써 시들었어. 바. 철수가 책임지고 준비한 행사가 무사히 끝났어.
최형용 외 (2019)	(22) 가. 동생이 색종이로 만든 쟁반을 어머니께 선물했다. 나. 수호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 다.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은 그 영화는 내일 개봉한다. 라. 축제에서 춤을 매운 잘 춘 그 학생이 춤 동아리 부원으로 뽑혔어.

<표 10> 『언어와 매체』 교과서별 관형사절 예문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어와 매체』 교과서 5종에서 제시된 관형사절 예문은 대부분 관계절에 해당한다. (18)-(22) 중에 관계절 구성이 아닌 것은 (19다), (20가), (21다)로 방민호 외(2019), 이관규 외

(2019), 이삼형 외(2019)는 다양한 관형사절 구성의 예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현식 외(2019), 최형용 외(2019)는 관형사절의 예로 관계절 구성만을 제시했는데, 이는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와 문법』에서는 학습활동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관계절의 형성 과정과 통사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언어와 매체』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이 이어지고 있다.

교과서	관계절의 통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활동
이관규 외 (2019)	㉠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에서 절을 찾아 그 종류를 쓰고, 절의 원래 홀문장을 적어 보자.
이삼형 외 (2019)	다음 안은문장에서 관형절을 찾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어 보자. • 어제 핀 꽃이 벌써 시들었어. → • 철수가 책임지고 준비한 행사가 무사히 끝났어. →
최형용 외 (2019)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결합하여 안은문장으로 나타내 보고, 제시된 질문의 답변으로 어울리는 문장이 각각 무엇인지 말해 보자.  <보기> • 그 영화는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 영화는 내일 개봉한다. [안은문장] -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은 그 영화는 내일 개봉한다. - 내일 개봉하는 그 영화는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문제> • 그 학생이 축제에서 춤을 매우 잘 추었어. 그 학생이 춤 동아리 부원으로 뽑혔어. [안은문장] - 축제에서 춤을 매우 잘 춘 그 학생이 춤 동아리 부원으로 뽑혔어. - 춤 동아리 부원으로 뽑힌 그 학생이 춤을 매우 잘 추었어.

<표 11> 관계절의 통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활동

<표 11>의 이관규 외(2019)와 이삼형 외(2019)에서는 관형사절의 원문장

을 서술해 보도록 하여, 학습자가 핵어명사와 동일지시적인 성분이 관계절의 내부에서는 통사적 공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형용 외(2019)에서는 동일지시적인 명사를 공유하는 두 문장이 있을 때, 동일지시적 명사를 매개로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관계절로 내포되는 것에는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는 점을 학습활동을 통해 보여주며, 학습자가 관계절의 형성 과정과 통사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표 11>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방민호 외(2019)의 학습활동도 주목되는 점이 있다. 아래 (23)에 그 내용을 제시한다.

(23) 방민호 외(2019)의 관형사절 학습활동

주어진 문장을 활용하여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안은문장을 만들어 보자.

- 언니가 피아노를 친다.

→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나현이는 \_\_\_\_\_ 소리를 들었다.

(23)은 <표 11>의 이관규 외(2019), 이삼형 외(2019), 최형용 외(2019)와 달리 관계절의 구조가 아닌 관형사절의 예를 학습활동에 제시하고 있다. (23)을 통해 학습자는 관계절과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가지는 관형사절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23)에서 관계절의 예도 함께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sup>30)</sup>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의 본문 기술과 관형사절 예문 제시 양상을 살펴 보면, 『언어와 매체』 체제에서는 관계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 지기는 하지만 관계절 구성이 아닌 관형사절의 예도 함께 활용하며 학습자에

30) 하지만 여기에는 전체 학습활동 내용의 균형적 구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구성이라는 사정이 있다. 방민호 외(2019:96)에 제시된 (23)의 전체 학습활동 내용은 각각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씩 제시하여 안은문장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형사절 항목에만 두 개의 예를 제시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추측된다.

게 한국어 관형사절의 다양한 구성이 존재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태도가 『독서와 문법』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반영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교재로 활용되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를 실시하는 EBS 『수능특강』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엿볼 수 있다.

(24) EBS(2021),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66쪽 3번 문항

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관형사절은 안긴문장의 서술어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단다. 이때 안긴문장 내에 생략되는 성분이 있는지에 따라 ‘관계 관형사절’과 ‘동격 관형사절’로 구분된다. 관계 관형사절은 그것이 꾸며 주는 체언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성분이 빠져 있는 관형사절이다. 동격 관형사절은 한 문장을 이루는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관형사절이다. 관계 관형사절과 달리 동격 관형사절을 삭제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불완전해진다.

- 경찰관 여럿이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 나는 ㉡네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놀랐다.
- 나는 ㉢네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놀랐다.
- 나는 ㉣내 친구가 빌려준 책을 무척 흥미롭게 읽었다.
- ㉠학교 뒤뜰에 피어 있는 철쭉이 나에게 무척 인상적이었다.
- ㉡그가 주변의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다.

- ① ㉠은 그 자체로는 문장을 이루는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춘 절이라고 할 수 없군.
- ② ㉡과 ㉢은 각각 그것이 꾸며 주는 체언인 ‘사실’과 ‘소문’의 내용을 나타 내는군.
- ③ ㉡, ㉢, ㉣은 관형사절 내에 생략된 성분이 없군.
- ④ 생략된 체언의 성분을 볼 때, ㉠, ㉢과 달리 ㉣에서는 관형사절이 꾸며 주는 체언이 관형사절의 목적어에 해당하는군.
- ⑤ ㉡과 ㉣으로 미루어, 동일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 관계 관형사절 이 되기도 하고 동격 관형사절이 되기도 하는군.

(24)는 <보기>에서 관형사절의 종류와 통사적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실제 예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인데, 문항 내에서 관형사절의 체계

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24)에서 관형사절의 체계를 기술할 때 국교연(2002)의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언어와 매체』 체제가 국교연(2002)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표 6>과 <표 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와 문법』에 이어 『언어와 매체』에서도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에 속하지 않는 관형사절의 예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4) 문항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관형사절의 체계와 관련된 용어를 선택할 때,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을 대신할 만한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사정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기술문법에서 전통적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논의가 시도되었지만 아직 특정 방향으로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언어와 매체』 체제에서도 관형사절의 체계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한 명시적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4)의 출제자는 국교연(2002)의 전통적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용어의 선택 및 그것이 함의하는 체계와는 별개로 우리는 (24)와 같은 기술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 언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형사절의 종류와 통사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 4. 나오며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학교문법에서 이루어진 관형사절의 체계에 대한 기술 내용을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 글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 (25)와 같다.

- (25) 가. 기술문법에서는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나누는 전통적 체계가 오랜 기간 동안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관계절과 명

사구 보절에 속하지 않는 관형사절의 예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언급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교연(2002)는 관형사절을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로 나누는 전통적 체계를 바탕으로 기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교연(2002)에서는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에 해당하는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전통적 체계에 해당하는 관형사절을 총망라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독서와 문법 I』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국교연(2002)에 이어 전통적 체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교연(2002)의 기술을 기계적으로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관계절만을 관형사절의 예로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독서와 문법』의 기술에서는 관계절을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만, 관계절 이외의 구성도 관형사절의 예로 제시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전통적 체계의 관계절과 명사구 보절에 속하지 않는 예가 기술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독서와 문법』에서는 학습활동을 통해 관계절의 통사적 특징을 학습하도록 하는 기술이 이루어졌다.

마.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매체의 언어』의 기술에서도 관계절이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관형사절의 종류를 제시하고자 하는 태도가 『독서와 문법』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교연(2002) 이후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체계 기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술문법의 연구 흐름과 함께 학습자에게 다양한 한국어 관형사절의 예를 제시하며, 관형사절의 문법적 특성을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언어 생활을 이해하는 데 최적의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문법의 목표 달성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과서에서 관계절 구성만을 관형사절의 기술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



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교육과정의 개정 및 새로운 교과서 집필 과정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부족하고 성기지만 이 글의 논의가 그러한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고의 논의는 학교문법의 관형사절 기술 내용 검토 자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효과적인 관형사절 체계 교수 방안, 관형사절 예문 제시 과정의 구문 도해 방법 등 실제 교수 과정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후속 연구로 미루어 두고 이 글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기본자료>

- 민현식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박영목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박영목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방민호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미래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ㄱ),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ㄴ), 고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윤여탁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윤여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이관규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관규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  
이남호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비상교육.  
이도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이삼형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이삼형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이삼형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지학사.  
최형용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학사.  
EBS(2021),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교학사.

### <논저>

- 고영근(2000), 「우리나라 학교 문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27-46.  
김지은(2002), 「관형절의 한 유형에 대한 연구」, 『애산학보』 27, 애산학회, 157-185.  
김태인(2022), 「관형사절의 새로운 분류 체계」, 『2022학년도 겨울 우리말학회 전국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우리말학회, 147-166.  
남기십(1973), 『國語完形補文法研究』, 계명대학교출판부.  
노하늘(2018), 「학습자의 문장 구조 이해력 신장을 위한 구문도해 활용 방안 연구 - 관형사절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61-187.

류운도(2001), 「국어의 관형절 분석과 지도 방법」,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숙영(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계절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5, 개신어문학회, 31-68.

박소영(2021), 「절 구성이 아닌 관형절의 존재에 대하여」, 『국어학』 98, 국어학회, 113-150.

박형진(2016),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형진(2020), 「보충어 관형사절과 부가어 관형사절의 통사적 실현 양상:관형사절 연속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15, 한국언어문학회, 69-103.

송소연(2015), 「국어 내포문 교육 내용 연구:중등 학습자의 내포문 구성 및 인식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창선(2016), 「학교문법의 안은 문장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61, 국어교육학회, 141-160.

신효필(1994), 「한국어 관계구문의 통사와 의미구조 -통합문법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규환(2021),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 문법의 형태론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7, 반교어문학회, 15-44.

이관규(2012) 『(제3판) 학교 문법론』, 월인.

이관규(2018), 「문법 용어 ‘절’과 ‘구’의 논리적 정합성 -학교문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3-4, 국어교육학회, 49-70.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 구조』, 월인.

이선웅(2014), 「기술문법과 학교문법:총론」, 『국어학』 69, 국어학회, 167-205.

이선웅·이은섭(2013),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49-277.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필영(1990), 「관계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467-478.

이필영(1998), 「명사절과 관형사절」,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491-516.

이현희(1990), 「보문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479-492.

이홍식(1990), 「현대국어 관형절 연구」, 『국어연구』 98, 국어연구회.

이홍식(1999), 「명사구 보문」, 『국어학』 33, 국어학회, 367-398.

임지룡 외(2020), 『(개정판)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장경희(1987), 「국어의 완형보절의 해석」, 『국어학』 16, 국어학회, 487-519.

최용환(2018), 「문법교육 내용범주의 체계화에 대하여」, 『어문학』 142, 한국어문학

회, 505-531.

최재희(2011), 「학교문법의 겹문장 체계 기술 방안 연구」, 『한글』 292, 한글학회, 87-130.

홍윤기(2010), 「문법 교육 항목으로서의 새로운 관형사절 도입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42, 이중언어학회, 331-361.

Comrie, B.(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s Typology*(2nd edition),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endler, Z.(1968), *Adjectives and Nominalizations*, The Hauge:Mouton.

박형진

가천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관 916호

031-750-5574

hjpark1203@gachon.ac.kr

접수 일자: 3월 24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2022년 4월 6일 ~ 2022년 4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25일

<Abstract>

A System of Adnominal Clauses of Korean School Grammar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n Descriptive Grammar  
— Focusing on grammar textbooks after Grammar(2002) —

Park Hyoung-Jin(Gachon Univ.)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description of the system of adnominal clauses of Korean school grammar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n descriptive grammar. *Grammar*(2002) can be regarded as described based on the traditional system, which dividing adnominal clauses into relative clauses and noun phrase complement clauses. *Reading and Grammar I*(2012) basically follows the traditional system of *Grammar*(2002). However, since the description of adnominal clauses has been simplified, most textbooks described only relative clauses as examples of adnominal clauses. In *Reading and Grammar*(2014), relative clauses are treated as important, and various adnominal clauses other than relative clauses are described. In *Language and Media*(2019), the descriptive attitude of *Reading and Grammar* continues and expands. These changes can be evaluated as positive changes to achieve the purpose of Korean school grammar.

\* Key words : adnominal clause, relative clause, NP complement clause, school grammar, descriptive grammar